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성경: 마가복음 10장 28-31절
(Tag:교회,복,신약성경,기독교인,마가복음)

28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막10:28-31)

28절에 대한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은 다음과 같다.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장 27절)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모두 비슷한데 마태복음에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란 단어들(가)이 추가되어 있고, 마가, 누가에는 ‘현세에 있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 서로 빠진 부분을 합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현세에 있어서는 백배나 받고 박해를 곁하여 받으리라’는 말씀이 완성된다. (마태에서는 현세와 박해라는 단어가 생략됨)

위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공관복음에 한결같이 부자청년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있다.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뿌듯해 하시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하셨다.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in heaven;)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막10:21)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 내세만 강조하고 현세를 강조하지 않아 오늘 날 그 부작용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현세에 대한 구원도 분명하게 언급하셨다.

말씀의 순서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는 가서 네 모든 것을 팔아라 그리고 그 돈을 베풀고 나누어라.

그러면 두번째 하늘에서(in heaven;)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전통적인 해석;하늘 안에서 보화가-네가 죽어 하늘에 가면, 그 복은 영원성이 있는 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에서 하늘이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의 재물을 쌓아라는 말씀이 된다.

새로운 해석;30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먼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순서적으로 그 다음으로 해석. 곧바로 하늘에서 네게 보화를 주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 두 번째 것으로 해석하면 흥미롭다.

너는 지금 베풀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가서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너의 도움을 받아 풍요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경제는 활성화가 된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더 많은 수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해석해 보자.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헐값에 팔아야 한다. 가격을 낮추어서 싼 값에 팔면 도매나 소매 상인들이 빨리 빨리 구매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재빨리 물건이 팔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돈을 다시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그 물건들을 살 수 있게 하여라. 그러면 도매나 소매 상인들은 다시금 그 돈으로 네 물건을 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경제의 회전속도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세상에는 항상 풍요로운 수확이 있다.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매력이 강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세상에는 돈은 많은데, 구매력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는 계속되는데 소비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 그리고 돈을 가진 자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돈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돈은 많은데 은행이나 금고에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돈을 더 찍어내야 한다. 금고에 돈을 쌓아 놓은 것은 나쁘다.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게 돈인데, 돈을 쌓아 놓으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돈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 성경에는 특이한 경제법칙이 있다. 먼저 토지는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칙이 있다. 토지는 모든 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 이 원리를 잘 응용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람이 노예로 팔릴 경우에는 7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런 값 없이 풀어주어야 한다는 법칙이 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채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을 경우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채무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하게 파산에 관한 법이 있다. 이 법을 잘 다듬어서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파산한 사람도 반드시 경제활동을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빚 중

얼마를 값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희생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강조하였다. 즉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경우, 현세에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100배를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다.

성경에서 언급한 희생의 대상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이다. 부동산과 관계를 희생하라는 뜻이다. 부자청년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한다면 동산까지 포함된다. 관계는 특히 식구관계를 말씀하셨다.

식구관계를 희생하라는 말씀은 대단히 과격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다. 특히 ‘아내’ 나 ‘남편’은 없다. (어떤 사본에는 ‘아내’가 포함되어 있으나 특정인에 의한 가필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모나 자식은 결혼과 더불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형제간의 우애를 끊고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한, 일가친척보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해야 함을 나타낸다. 단순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가족보다 더 우선시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백배를 얻는다는 뜻이다. 즉, 아버지는 포기하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영생은 물론)

물론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박해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김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다.

갈등관계가 시작되면 세속적으로 싸우고 다투라는 말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라는 뜻이고, 진리를 위해서 ‘저항’ 하라는 뜻이다. 공격이 아닌 방어전이라는 뜻.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건강하고 든든 하라는 의미도 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아멘.

2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눅18:28-30)

<찬양예배>

제목 : 교회를 세우신 목적 1,2 성경: 에베소서 4장 11-16절
(Tag:교회,교회의목적,오종직,새로운교회론,교회론,신약성경,에베소서)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4:11-16)

돈과 정치에 대한 바른 교회론

교회는 돈과 정치에 대해서 담을 쌓고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그리고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많다.

사실은 일과 돈과 나라들을 구원하라!

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2:9)

일이 구원 받는 것은 일 가운데 불법이나 부정이 없는 것.

돈이 구원 받는 것은 죄를 위해 지불되지 않는 것.

나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현재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려면?

나라에는 정부와 교회가, 정부에는 삼권이 교회에는 5중직이.

정부와 교회는 병립관계. 상호 보완관계. 정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정부를 돕는다.

정부에는 삼권이 입법, 사법, 행정이 정확하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요즘은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뭐든지 헌법재판소에까지 문제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 갈등 관계가 아니면 행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통령제란 대통령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법을 제정해서 보호하도록 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사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정은 신호등에 걸리고 꼬리를 무는 자들로 인해서 막힌 사거리와 같다.)

교회는 통치자를 보호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에게 협조해서 잘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면 책망하고 권면하고 훈계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교회에는 5중직이 있는데, 이 직무들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와 선교가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목사는 목양을 담당한다. 후에 일터사도가 되어 전체 교회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되도록 한다.

예언자는 목사를 돕도록 하기 위한 별동대. (여당과 야당의 관계)

복음전하는 자는 방송관계를 담당하며, 사도와 같이 본부에 있다.

교사는 교리와 가르침을 담당하는 자로. 전체는 주중에 일터에서 직무를 보게 하는 것이 좋다.

